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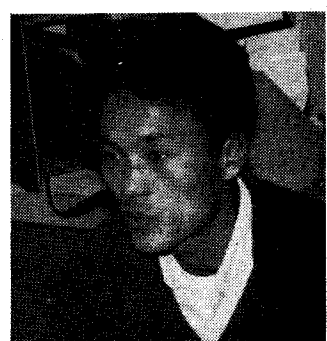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박홍근(국문·4)군

"개강을 맞아 학내 곳곳을 다니면서 학우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바쁜 사업일정 때문에 그렇지 못한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중에 열렸던 캠퍼스가 개강을 맞아 학우들의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때면 학생회 간부의 일일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우들의 모습들이 92년 총학생회 사업에서 경회발전, 조국사랑에 기여 하였으며 합니다"며 개강인사말과 함께 전방을 밝히는 박홍근(국문·4) 서울캠퍼스 제24대 총학생회장을 만나 보았다.

박홍근 총학생회장은 제23대 총학생회 사업에 대해 "일반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투쟁의 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간부 중심의 계획과 실천으로만 사업을 진행한 점은 오히려 할 수 있었지만, 일반 학생들의 자주화 원전설투쟁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간

올해 92년은 국학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이를 통해 변혁운동 선상에 서는 독재 정치의 연속이나 아니면 민주정부 수립이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보는 올 92년 한 해동안 양캠퍼스의 사업을 이끌어갈 총학생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의견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우리가 그렇게 말해오던 92-3 바로 지금 우리앞에 다가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3월투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 다가올 '92 총선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박홍근(사회대 경영·4)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을 만나 보았다.

-개강소감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학회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방종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방종사업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개강과 함께 학우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물론 기쁘기도 하구요.
-지난 23대 총학생회를 간단히 평가한다면

부들의 역할 부족으로 하부단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일반학생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간부들의 역량강화와 일반학우들의 의견을 총화할 수 있는 과학생회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며 올해 사업의 주된 기조를 밝혔다.

또한 박홍근 총학생회장은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자주화원

체육기금 모집·총동문회등 자금심 고취 행사 마련
젊은 층의 정치적 허무주의의 불식 위해 노력 경주

건설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학우들의 인식공유가 필요합니다. 작은 승리에서 학우들의 투쟁참여와 이를 토대로 보다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학우들의 생활, 학문, 투쟁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근거로 제공하겠습니다"라며 밝히고 이를 위해 연설회, 간담회, 모의총회등 일반학생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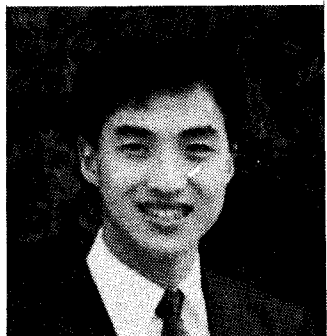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번 학기 등록금 협상은 과와 단대별의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내 제반문제에 대해 토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등록금 협상은 그간 재단의 열악함으로 재학생들의 부담이 커져있음을 인식하고 재단의 열악함을 학우대중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재단의 공개와 협상차리에 참석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며 밝혔다.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 임시

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요인의 한 가지인 국고보조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이 열악한 것에 대해 전대협 차원의 교육부 항의 방문을 계획중이다"며 말하고 3월말 총선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현 여당의 장기집권과 고두보로 건설하고자 하는 세력들을 무마시키고 작년 5월 투쟁이후 이데올로기 허무주의와 민중세력들에 대한 불신, 현 젊은 세대의 패배주의를 분쇄시키기 위한 행사가 여러 분야에 진행중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주권 바르게 행사 운동' 등이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재자 투표 신고에 서울 캠퍼스 1천5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등 총학생회가 주최하였던 공명선거의 일환으로 1인 10명 조직화 활동 및 본교가 속해있는 동대문구 지역의 전국연합 후보지지 및 반민주 선전사업 등을 계획 중이고 일부 진행중입니다"며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92학년도 사업의 주된 목표



정에 대해 경회원의 자금심 고취를 드는 박홍근 총학생회장은 "이수병 동문의 추모제와 교수들과 학교측의 협의하에 대대적인 스승의 날 행사, 경회 체육기금, 경회 총동문회 발 등 을 말하며 "올해의 총학생회 사업내용에는 경회원의 자금심 고취와 젊음의 패기, 열정을 담아 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92년도 총학생회는 학생회 간부와 일반학생들이 일심동체로 결합할 수 있는 시기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학생회가 일반 학우 각자의 소속집단으로 느낄 수 있는 주인공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는 그간 경회원의 축적된 역량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경회원의 학생회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고 학생회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말을 끝맺었다.

〈서동국 기자〉

예산공개·국고보조 확대 절실

92학년도 등록금협상 현황 및 전망

학기초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대학의 학생들은 등록금 하향인하 조정과 재단의 공개 및 참석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등의 실행행사를 벌여 매년 진행되는 등록금협상의 새로운 변화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 대학의 학생들은 학교측의 인상율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등 등록금 재원 지출의 상당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건설가 계정

단참석 요구에 학교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협상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학생들은 지금의 협상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재단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을 시는 협상을 하지 않고 극단적인 상황에는 점거농성을 벌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단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생들의 재

(건설비)의 부담대상을 논의키 위해 재단의 참석을 강력히 요구 하고 있다.

성균관대, 동국대, 한국외국어대, 세종대 등 서울시내 주요대학들은 학교측의 19~20% 인상율에 반발, 학교의 성실한 예산 공개와 함께 재단의 참석과 전입금확충을 제기하고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 학생들은 학교측 인상인 19.6%에 반발, 민주적인 등록금정책을 위한 의견 기구설치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국대와 한국외국어대도 학교측의 일방적인 고지에 환불 투쟁등을 벌이고 있으며 경내대의 경우 자체수납을 결의해 진행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대학들은 이번 등록금 협상에서 재단전입금확충을 통한 인상을 인화하고 함께 특히 총선과 관련 국고보 조급 확대를 주요 수익사업등을 학생들에게 공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재단의 경우도 고정, 유동자산 수익사업등을 학생들에게 공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미지미로 한국사회 사립대학의 공통 문제인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학생 공동으로 정부에 보조금 확충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등록금협상은 단순한 인상을 싸움에 그치지 말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논의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기태 기자〉

..... 신임 양캠퍼스 총학생회장 인터뷰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 최만식(경영·4)군

▲이전까지 계속 자주적 학생회라는 말을 해오기는 했으나 지난해 도서관투쟁과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우들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자주적학생회라는 것을 겉으로 구제화시킨 것이기도 하구요. 이러한 면에서 저는 23대 총학생회를 높게 평가합니다.

-올해의 가장 큰 공약중의 하나였던 민주집중제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 "민주집중제"라고 하는 것은 그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이하 전학대회)로 가는 중간과정이지요. 다른 여러학교에서 전학대회를 구성한 예는 있으나 그에 결

-92-3년을 맞는 총학생회장 자신의 입장을 말해주신다면
-민자당 2년 노태우4년을 돌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실정이 나아진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나빠지기만 했구요. 지금은 청년학생의 경우 교육재정확보투쟁 노동자 농민은 임금투쟁이나 수입개방까지 투쟁을 통한 생활적 이해와 요구를 부문계열별로 진행해나가 이를 총선과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독재정권의 연장인 아닌 민주주의의 구성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요. 또한 저도 3월 총선의 승리를 목표로 좀 더 많은 기초 학우를 추동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용성총련을 학우들 속에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재투에 대해 한 말씀
- "교육재정확보투쟁"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파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정책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에서도 민주적절정, 교학협의체 건설,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교수, 학생 공동노력이 바로 민주집중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있으며 학우들이 없는 방중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개강후 학우들이 있는 안에서 과총회등을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이를기반으로 반드시 민주적 행동을 이루어 낼것입니다.
-올해 용성총련까지 총학생회 연합(이하 용성총련)의 의장을 맡으셨다면
-용성총련은 중소규모의 지구이지만 전대협 안에서도 투쟁의 기풍이 윤향한 지구입니다. 용성총련은 단순한 투쟁뿐만 아니라 꾸준한 간부들의 혁신으로 소속 9개대학 학우들속에 살아있는 조직으로서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이를위해 지금은 3월총선과 교재투를 원차제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이라 하는 별명 있단데 그 유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은 우선 저의 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동아리 활동을 한 곳이 '바사상'이라는 명성동아리였고 바로 그때에 '만화통신'이라는 만화화동아리 있었는데 그때 만화통신 친구들이 제 모습이 아기자기롭다고 놀려대며 이런 별명을 지어준 것이 이제까지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부탁 하고 싶은게 있다면

▲총학생회가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하더라도 학우들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올해는 정치적으로 총선, 대선 등 학우들의 직접적인 이해와 약간의 거리가 먼 일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자기자신의 이해와 요구에 집착되지 않더라도 서로 웃으면서 같이해 나간다면 승리한다는 것은 진리라고 같은 것입니다. 항상 총학생회와 같이해 주십시오.
〈엄홍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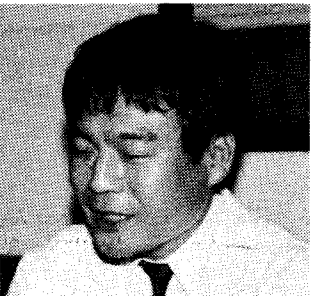
"이제야 의사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저를 믿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신중해지고, 때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신당 한의원 원장으로 활동중인 신현태(한의대·85졸)씨는 다소 어색해 하면서 요즘 근무하는 한의원에서의 생활을 밝혔다. 학생 시절 당시 남다른 활동력으로 여러 일화를 남겨 지금도 주위 사람들로 부터 회자되고 있는 신현태씨는 지난 일들에 대해 짧은 시점으로 한때 각기였었다고 농담섞인 어조로 대답했다.

"현재 세대는 현재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끔 순간의 실수를 저지르기

—신현태(한의대·85졸)동문을 만나

도 하지만, 그것들을 스스로 깨닫도록 기성세대는 놔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강요를 해서는 더욱 안되구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물려준 선배는 다른 영역에서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비교적

은총의 무관심이 생기는 것이며, 국민은 정치를 못 느끼고 살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현실 때문에 누구나 정치에 종사하려고 밖에 논하지 않게 되었다"고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하였다.



지금도 오히려 길을 찾아서 마음이 편하다"며 "무슨 분야에든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혁명도 종지만 자기분야에 문외한이면 절름발이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라며 개개인이 자기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랐다.

또한, 인생에서는 당연한 보편적 과정을 지혜롭게 넘겨야 새로운 기회가 다가온다며, 욕심이 많아 돌을 잡으려다 모두 놓쳐버린 자신의 전철을 후배들이 밟지 않기를 당부했다. 〈熊〉

“젊은 사람들의 실수는 그들 스스로 깨닫게 내버려 두고 기성세대는 다른 부분에 영향 끼쳐야...”

차분한 어조로 사회 참여에 대한 소신을 밝힌 신동문은 그러나 지금은 초지일관 관련 자신의 생활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럽다고 말한다. 총선을 맞이한 요즘은 선거에 대한 젊은층의 무관심에 대해 신동문은 "기성세대가 사회의 지도를 잘 세워주니까 젊

신동문은 처음에 72년 화학과로 입학했으나 의사가 되려는 희망으로 한의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28살에 결혼을 하여 작년 12월부터 이과 한의원을 개원하여 한의사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방황을 했지만

방송국 요원 모집

서울캠퍼스

수원캠퍼스

저희 대학의 소리 방송국에서는 92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제40기 수습요원을 선발합니다. 이번 제2차 수습을 모집함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부분 및 선발기준 (일반상식·공통)
- 아나운서 : Voice testing
 - 엔지니어 : 전자 상식
 - P.D : 작문, P.D 작문
 - 보도기자 : 논술
 - T.V.요원 : 작문

2. 모집일정
- 원서접수 : 3월17일 오후4시
 - 필기시험 및 면접 : 3월17일 오후4시 본 방송국
 - 합격자 발표 : 3월18일 (국고, V.O.U. news—V.O.U.)

—V.O.U.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대학의 소리 방송국에서는 현학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92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모집부분 및 선발기준 (일반상식·공통)
- 아나운서 : Voice testing
 - 엔지니어 : 전자 상식
 - P.D : 작문, P.D 작문
 - 보도기자 : 논술
 - T.V.요원 : 작문

2. 모집일정
- 원서 접수마감 : 3월17일 오후5시30분
 - 필기시험 : 3월17일 본 방송국 (오후6시)
 - 면접 : 3월17, 18일 본 방송국 (오후 5시30분)
 - 합격자 발표 : 3월20일 (국고, V.O.U. 뉴스)

참 언론 실현에 동참하고자 하는 신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V.O.U.변혁의소리,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소리입니다—

학생의료공제 이용안내

1. 학생의료공제 목적: 본교 학생이 예상치 못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고액의 진료비 발생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며 재학생 학생의 건강증진을 기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 공제회 지정 의료기관: 본교 보건진료소(제1차 진료기관), 경희의료원(치과, 한방포함) 병원급이상의 진료기관(단, 의료보험증 소지자에 한함)
3. 요양급여기간의 제한: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학기당 통상 90일
4. 일반회원의 진료절차: 학생회 공제회 담당자로 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아 교내 보건진료소(음약대학입)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보건소의 진료비위를 넘는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는 경희의료원으로 이송함.
5. 공제비 신청 절차: 가. 이종가입회원(부모나 본인의 기존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받은 회원)은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공제회(학생처)에 제출하면 발표와 같이 공제비를 지급함. 나. 일반회원(공제회에서 진료카드를 발부받은 회원)은 경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가입자와 모든것을 동일하게 처리하여 줌. 다. 공제회원이 경희의료원을 방문하지 못할 정도로 응급하여 타진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응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진료비 납입 영수증을 공제회에 제출하면 심사하여 공제비를 지급함. * 진료비 영수증으로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 공제회원이 납입한 가입비 및 공제회비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반환 될 수 없음(의료공제회 정관 제39조)

급·여·기·준

일반회원 진료시			이종가입회원 진료시		
구 분	부담금	총진료비중 본인부담	구 분	본인 부담금에 대한	공제회 부담
교내보건진료소		총진료비중 본인부담 3,000원 미만·무료 이상:30%	병원급이상의 의료보험 진료기관(치과, 한방포함) 외래	20% (단 진료료는 본인 부담)	80%
경희의료원(치과, 한방) 외래		55% (단 진료료는 본인부담)	병원급이상의 의료보험 진료기관(치과, 한방포함) 입원	0%	100%
경희의료원(치과, 한방) 입원		20%			

이종 가입회원의 본인부담금이란 총진료비중 의료보험비에 의한 본인 부담금중 공제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공제회 이용절차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은 학생처 의료공제회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965-0045~0048)

경희대학교 학생의료 공제회

영자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영자신문사 (University life)는 '92학년도 수습기자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영 자 신 문 사

- 1)모집대상 '92학년도 신입생
- 2)모집부분 일반기자, 사진기자, 컷기자
- 3)모집일정 가)원서교부 접수 및 마감:1992.3.9~3.23 나)시험일시:1992.3.23 (월)18:00 다)면접일시:1992.3.24 (화)18:30 라)합격자 발표: 1992.3.27(금)
- 4)시험과목 영어, 상식, 논문
- 5)시험장소 서울—편집실 (한의대 건물 지하) 수원—편집실 (학생회관 1층 왼쪽공간)